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 완성한다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7일,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자문기구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 앞으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과 평가, 통합지원 시책추진,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지역의 복지자원과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현재 남원시는 '2025년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모두 선정되어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올해 초 장기요양등급자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상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7일,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3,3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도 분석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의료 접근성 강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원시는 이러한 시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병문 진료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기획·시범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협의체 출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남원시 열려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27일 제294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원시의회가 제안한 공공의대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건의안은 △제22대 국회는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 △정부는 약속한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의회는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정당, 국회, 대동령실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가 27일 제294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도·시·군의회가 협력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

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A' 등급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사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 하반기 평가에서 지방의료원 35개소 중 최상위 5개소에 선정되어,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였다.

이 지원 사업은 공공병원의 경영정상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후 4개 등급을 부여하며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계획 타당성, 혁신의지, 지원 효과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해 총 30억5천만원(기본지원금 20억원, 추가

지원금 10.5억원)을 확보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높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의료인 경영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계획 타당성, 혁신의지, 지원 효과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획득해 총 30억5천만원(기본지원금 20억원, 추가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디지털리더스클럽 해외탐방 발대식

남원시는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클럽 해외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지털리더스클럽은 SW개발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W/IT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남원시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이번 발대식은 글로벌 IT 현장을 체험할 학생들의 첫 공식 일정으로, 참가자

들은 탐방의 취지와 일정을 공유하며 해외 탐방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탐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월 모집공고 이후 8월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부트캠프와 SW미래채움 전폭센터에서 진행된 심화교육을 거쳐 선발된 우수 수료생 12명으로, 학생들은 부트캠프와 심화교육을 통해 파이썬, 게임



남원시는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클럽 해외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개발, 아두이노 기반 IoT 등 실무 중심의 SW·AI 기술을 학습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다.

행사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탐방 일정, 안전수칙,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학생들이 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들은 자신이 개발한 SW·AI 작품을 소개하며 그동안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해외탐방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한층 높였다.

이어 진행된 시장과의 대담 시간에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생들은 오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디지털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일정은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을 방문, 국립대학 IT 관련 학과 견학, 첨단 에듀테크 현장 체험, 현지기업의 자동화 생산공정 탐방 등이 포함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임실 펫투어'를 선보이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을여행

'임실 펫투어' 개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입지 강화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임실 펫투어'를 선보이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펫투어 프로그램은 반려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오수의견광장과 군 대표 관광지들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협업을 추진했다.

지난 24일 진행된 첫 번째 임실 펫투어는 △옥정호 출렁다리 △봉어섬 생태공원 △오수의견광장 등 임실의 대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 진행된 임실 펫투어 참가자들은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반려견과 함께 꽃길을 걷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사진도 찍으면서 가을 정취를 즐기는 등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두 번째 임실 펫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코스는 천만송이 국화꽃이 만발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광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유령동정과 구절초 공원, 치즈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수의견광장은 '의견(義犬)'의 전설을 간직한 역사적 명소로 반려동물과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넓은 반려동물 전용 잔디광장과 조형물, 휴게공간이 잘 조성돼 있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이번 투어는 반려견 안전벨트가 제공되는 반려동물 전용 버스로 운행되며, 전문 사진작가와 안전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전문 여행가이드 '펫가이더'가 동행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돕는다.

자세한 내용은 펫초고 트래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투어를 통해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29일~11월 9일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20%로 상향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동참한다.

이번 행사 참여에 맞춰 군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정부의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촉제로 10개 부처와 37개 유망사가 참여하며 국립박물관 무료 개방을 비롯해 교통·숙박·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행사기간 중 4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액 소진 시까지 월 150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14억원



의 발행액이 전액 소진되면 당초 할인율이었던 15% 캐시백을 적용한다.

단, 자류상품권(1만원권)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를 중단해 모바일·카드 상품권만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CHAK) 어플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 상품권은 은행 방문 후 구입이 가능하다.

/순창=이왕원 기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 도로표지병 정비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회장 정명자)는 최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표지병 정비사업을 지난 2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표지병은 야간 조명이 없는 도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매립등으로,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길목의 주민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안전 시설물이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소비자교육중앙

회 순창군지회는 순창군과 협력해 현장 실태조사 및 야간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후 여성들의 체감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창읍 순창로 226-2에서 순창10길 22까지의 구간을 우선 선정해 도로표지병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야간 통행 시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귀갓길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임실군, '노인대학 한방교실' 프로그램 실시

임실군이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부설노인대학교 교육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및 안면신경마비'의 주요 증상 및 예방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노인대학 한방교실)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29일 실시했다.

노인대학 한방교실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 박성민 한의사가 뇌졸중 및 안면신경마비의 증상, 종류에 따른 원인, 치료 및 예방 방지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과 개별상담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의학적인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 검사와 건강 체조를 실시했고, 더불어 만성질환 비법서를 제공하여 교육 후 집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게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소방서, APEC 정상회의 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

순창소방서는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지역 내 각종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근무 기간 동안 전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모든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을 항상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기동성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순찰을 병행해 화재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서장은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초기에는 '신속·최고·최대'의 소방력을 투입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 대원의 안전 확보와 상황 전파 체계를 정비해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순창=이왕원 기자

남원소방서,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남원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건조한 날씨와 영농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을철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0.20.~12.15.)'에 맞춰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산불발생 여건 악화에 따라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 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림 내에서는 절대 금연할 것 △산림 인근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캠핑 등 허가된 장소에서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철저히 확인 △비탈이 강한 날에는 화기 사용을 자제 △화목보일러 재처리 시 불씨 잔존 여부 반드시 확인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119 신고 후 추후에 알리고, 바람을 등지고 낮은 자세로 안전한 방향으로 대피 △대피 시 젖은 수건이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산이 아닌 넓은 도로 방향으로 이동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재난대비 실천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지난 24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대형 재난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25년 재난대비 실천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지원기관·단체의 역할분담과 통합 지휘체계 확립을 통해 긴급구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재난 수습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청, 경찰서, 군부대 등 9개 기관, 장비 39대와 인원 154명이 동원됐다.

훈련 주요내용은 임실군민회관 붕괴 및 화재 상황을 가정해 △재난 상황전파·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긴급구조조기관 역할정립·협력체계 강화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체계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기동·재난대응 통합지휘역량 강화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